

한일, 수출규제 해제·WTO 제소 취하 합의

3년 8개월 만에 갈등 봉합
반도체 소재 공급망 강화
“기술동맹도 시너지 기대”

일본이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해제함에 따라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공급망의 불안정성이 크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정부는 16일 도쿄에서 개최된 한일 정상 회담에 앞서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불화수소·불화 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의 수출 규제를 해제하기로 했다.

이에 우리 정부도 일본 측의 3개 품목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화답하면서 3년 8개월 동안 이어진 한일 간의 수출 규제 관련 갈등이 봉합됐다.

일본은 한국 대법원이 2018년 10월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일본 피고 기업이 배상하라는 확정 판결을 내리자 이에 반발해 2019년 7월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을 대상으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내놔왔다.

이들 품목은 한국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에 매우 중요한 소재다. 2019년 기준으로 일본은 글로벌 시장에서 불화 폴리이미드와 포토



“대일 굴욕외교 중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의원들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태극기를 들고 ‘대일 굴욕외교 중단하라’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레지스트를 약 90%, 불화수소를 약 70% 생산하는 국가여서 국내 반도체 등 산업 생태계에 비상이 걸렸다.

일본은 같은 해 8월에는 화이트리스트(수출 관리 우대국)에서도 한국을 배제했고, 이에 한국은 그해 9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WTO

에 제소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의 규제로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반도체 등의 수출에 빨간불이 켜지

자 소부장 자립을 선언하고 관련 기술 개발과 수입국 다변화, 투자 유치 등의 정책을 강력히 추진했다.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은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를 계기로 이듬해인 2020년 총 100개가 선정됐다. 이에 작년 상반기 기준 소부장 제품에 대한 일본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은 15.4%로 떨어졌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같은해 10월 정부가 관리·육성하는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을 100개에서 150개로 또 대폭 늘렸다.

작년 말 기준 한국의 전체 소부장 부문 수입액(2,614억6,000만달러) 가운데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액(394억2,000만달러)은 약 15.1%를 차지해 비중이 역대 최저치에 이르렀다.

그러나 통계와는 달리 산업 현장에서는 체감하는 일본 의존도가 여전히 높고, 대일 관계 악화로 기업의 경영 환경이 나빠졌다는 지적과 불만의 목소리가 함께 터져나왔다.

이날 한일 정부가 수출 규제와 관련한 문제를 일단락 지으면서 기업들 입장에서는 공급망에 대한 불확실성 감소와 연구·개발(R&D) 협력 확대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이 강점을 지닌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전략기술과 일본의 강점이 큰 소재, 장비, 기초 과학 분야에서 공동 연구를 통해 R&D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강감산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은 이날 일본 도쿄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양국의 투자와 무역 협력 확대, 무역 관리, 경제 안보로 이어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재명 “총선 패하면 내 정치도 끝난다”

의총서 무더기 이탈표 소회
‘질서있는 퇴진’ 맞물려 주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6일 “내년 총선에서 패하면 당이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내 정치도 끝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지난달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 당시 무더기 이탈표가 발생한 뒤 이어진 당의 내홍과 관련한 소회를 밝히며 이같은 취지로 언급했다고 복수의 의원이 전했다.

이번 의총은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처음으로 당 소속 의원이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였다.

이날 메시지는 비명(비이재명)계 중 강경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사법 리스크가 불거진 현 체제로는 총선을 치를 수 없는 만큼 이 대표가 물러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 대한 입장으로 풀이된다. 자신의 정치적 운명까지 가르는 중요한 선거인 총선에 결연한 각오로 임하는 만큼 일단은 현 지도부를 신임해 달라는 우회적 메시지로도 읽힌다.

한 참석자는 “총선 승리를 가장 절박하게 바

라는 사람이 대표일 것”이라며 “그런 절박함을 느끼지 못하는 의원들이 있다는 생각에 자신의 심정을 호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대표는 특히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어떤 일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내놔다고 오영환 원내대변인이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

이 대표의 언급은 당 일각에서 ‘질서 있는 퇴진론’이 나오는 것과 맞물려 주목된다.

이는 당장은 현 지도부를 중심으로 내분을 수습하되, 적당한 시점에 이 대표가 물러나고 당은 조기 전당대회 대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총선을 치르는 구상이다.

이 대표의 이날 발언은 시각에 따라 ‘질서 있는 퇴진’ 요구도 수용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읽혀서 관심을 끈다.

오 원내대변인은 이 대표가 한 발언의 구체적인 의미를 묻는 말에 “이 대표가 ‘국가와 국민의 삶, 당의 미래를 위해 어떤 일도 할 수 있다’고 했다”며 “별도의 해석은 붙이지 않겠다”고만 대답했다.

이 대표는 한편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원들의 요구를 경청했고, 지도부 구성과 관련해서도 해안을 들었다”며 “더 좋은 결과를 만드는

선택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전날 당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와의 간담회에서 전면적인 인적 쇄신을 요구받는 등 최근 들어 의원들과의 소통에 주력해 왔다. 이 대표는 지도부 교체 요구와 관련해서는 “전당대회 이후 최고위가 단일 체제로 구성돼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 단일한 색채가 문제고 다양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됐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원들의 의견을 적잖이 수용한 듯한 이런 태도는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이탈표가 대거 발생한 데 대한 입장에서 드러났다.

이 대표는 “의원들의 당을 향한 충정과 지적으로 생각하고, 겸허히 수용한다”며 “그런 상황의 근본적 원인은 저를 비롯한 지도부의 소통 부재”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일부 비명계 의원들을 향한 강성당원들의 ‘문자폭탄’ 등 폭력적 행태도 바로 잡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 대표는 “당내 일부 지지자가 의원들을 향해 지나친 행위를 해 갈등이 격화하는 상황은 당 대표 책임”이라며 “내부의 갈등을 줄이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연합뉴스

“한일문제, 국내정치 활용 안돼”

윤 대통령, 일 동포 오찬
양국 관계발전 역할 당부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일본 방문 첫 일정으로 재일동포들을 만나 오찬을 함께하며 한일관계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도쿄 시내 한 호텔에서 재일동포 오찬 간담회를 열고 “지금 한일 양국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출발점에서 있다”며 “조국에 대한 여러분의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은 미래 지향적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일본 동포 사회는 우리 민족 근현대사의 아픈 상처와 함께 시작했지만, 지금은 한일관계의 가장 탄탄한 버팀목으로 성장했다”며 “미래 지향적 한일관계를 위해 여러분들께서 더 큰 역할을 해주실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오부치 게이조 전 총리와 미래 지향적 한일관계를 선언하면서 ‘불행한 50년이 1,500년의 후회 역사를 부정하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언급한 일을 소개하며 “도쿄에 와서 여러분을 보니 가슴이 벅차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국민은 가장 가고 싶은 나라로 한국을 지목하고 있고, 한국 국민은 코로나 창궐 전인 2018년 758만 명이 일본을 방문했다. 2019년에도 500만 명이 넘게 일본을 방문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 국민이 상대국을 좋아하면 문화에 관심을 갖는데, 책임 있는 정치인이란 양국 문제를 국내 정치나 자기 입지에 활용해서는 안 된다”며 “민주 국가에서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일관계가 원상회복을 해도 만일 대립이 생긴다면 강력하게 싸울 때는 싸워야 할 수도 있지만, 교류까지 끊는 것은 맞지 않다”며 “정부와 기업이 치열하게 경쟁하더라도 미래 세대와 문화·학술은 늘 탄탄한 교류 기반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나보고 어려운 결단을 했다고 하는데 너무 당연한 결정을 한 것이다. 엄청난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한일관계가 불편하거나 악화되면 동포들부터 힘이 든다. 정부 대표로서 동포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말하기도 했다. 도쿄 한국학교 학생 합창단의 애국가 합창으로 시작한 이날 간담회에는 재일동포 77명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사람과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의료기관 세탁물 전문처리 기업!!]

호남 최대 최첨단 세탁시설 완비,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으로 철저한 품질관리, 효율적인 관리로 의료서비스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여 호남 지역을 대표하는 세탁 전문 시스템을 갖추어 친환경 세탁 문화를 위해 연구와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치(연속) 세탁기



다림시설



운반카트 고온소독 살균



(주)백양실업

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 신기길 93 T. (061)392-7900